

조선후기 대하소설에 나타난 일상

-〈완월회맹연〉을 중심으로

이지영(아주대)

1. 서론
2. <완월회맹연>을 통해 본 일상
 - 2.1. 시공간
 - 2.2. 인물행위
3. 소설에 나타난 일상의 의미
4. 결론

1. 서론

90년대 이후 우리 학계에서는 논문이나 단행본에서 ‘일상생활’ 혹은 ‘생활’, ‘일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역사학계에서는 ‘일상사’, ‘미시사’, ‘심성사’, ‘생활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서구의 관련 이론을 번역하거나 해석한 단행본도 많을 뿐 아니라, 이를 수용하여 우리 역사에 적용한 연구도 늘어나고 있다.¹⁾

1) 이와 관련한 독일 및 프랑스의 역사이론에 대해서는 『오늘의 역사학』(안병직 외, 한겨레신문사, 1998)에서 정리한 바 있다. 특히 프랑스의 아날학파에 대해서는 『아날학파의 역사세계』(김응중, 아르케, 2001)에서 소개하였으며, 독일의 ‘일상사’에 대해서는 『일상사란 무엇인가』(뤼트케 외, 이동기의 역, 청년사, 2002)를 참고할 수 있다. 이 밖에 후기 자본주의의 일상 문화에 대한 미셸 드 세르토의 이론도 국내에 소개되어 있다.(장세룡, 「미셸 드 세르토의 일상과 민중문화」, 『서양사론』 82, 서양사학회, 2004) 한편 문화연구에서 일상경험이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아도르노나 벤야민 등의 이론이 재조명되기도 하였다.(김응숙, 「문화연구와 일상경험의 세계」, 『한국언론학보』 42-3, 1998 봄; 노성숙, 「일상의 미학과 아도르노」, 『철학』 72, 한국철학회 2002) 일상에 대한 서구의 이론의 영향으로 국사학계에서도 『조선시대 생활사』(박병호 외, 한국고문서학회 편, 역사비평사, 1996) 등이 출판되기도 하였다. 국사학계의 연구동향은 우인수의 「조선시대 생활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역사교육논집』 23·24, 역사교육학회, 1999)에 정리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이하의 논의에서

일상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한 마디로 말하기 어렵다. 거대 이론 중심의 구조사에서 벗어나 보통 사람의 삶에 주목할 것을 주장하는가 하면, 구조와 이론을 종래와는 다른 방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서술하려는 경향도 있다. 또 맑시즘에 대한 거부적 성향을 띠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기도 한다. 통계와 문서를 통한 계량적인 방법으로 일상을 밝히려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일상의 모습을 직관과 감성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처럼 ‘일상’이라는 주제를 택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실제 연구의 목적이나 방법 면에서는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이들간의 합의점을 찾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그동안 소홀히 되었던 평범한 사람의 삶에 대해 관심을 보인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일상은 ‘반복’되기 때문에 의미가 부여되지 않았다. 일상 연구는 하찮은 것, 주변의 것, 무의미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것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아 의미를 부여한다.

일상에 대한 역사학계의 관심은 조선시대 소설 연구자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소설은 사건과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서술하기 때문에 일상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즉 등장인물의 일상은 사건이나 갈등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야기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소설연구에서도 갈등이 중심이 되어왔다. 인물간의 갈등을 통해 작가의 주제의식을 밝히는 것은 소설연구의 전형적인 패턴이었다. 그런데 갈등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소설이 당대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밝히기 어렵다. 독자들이 갈등이 전개되는 것에만 주목하면서 소설을 읽지는 않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소설 독자가 뻔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읽는 데에는 그 밖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서사 이외의 것, 바로 소설에 나타난 일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완월회맹연>을 대상으로 하여 소설 속에 서술된 일상의 모습을 고찰하고 이를 해석해 보고자 한다.²⁾ <완월회맹연>은 조선시대 어떤

이들 연구성과를 따른다.

2) 본고에서 사용한 텍스트는 김진세 교주, 『완월회맹연』(서울대출판부, 1989)이며 부분적으로 장서각본을 참고하였다. 이하 <완월회맹연>의 예문은 (교주본의 권수:인용면수)의 형

소설보다도 일상의 서술 비중이 높은 작품이다.³⁾ 본고에서는 <완월회맹연>(이하 <완월>)의 일상이 당대 향유층의 삶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소설을 읽던 당대인의 삶에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며, 또한 소설읽기가 실제 어떤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완월회맹연>을 통해 본 일상

2.1. 시공간

<완월>에서 하루는 “모친을 뒤흔겨 계명으로부터 삼경에 이르러 희해를 찬조하며(1:361)”에서 알 수 있듯이 계명에서 시작되어 삼경에 끝난다.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계명 즉 새벽닭의 울음이 해와 운행과 관련이 있는 자연의 시간개념이라면 삼경은 시계로 측정되는 인공적인 시간이다. <완월>의 시간개념에는 해의 운행에 따른 자연의 시간이 시계에 따른 인공적 시간과 공존하고 있다. 이를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 ㉠ 계명을 응하여 관소하고 들어가 인경으로 더불어 부모의 의대를 받들며 소세를 나와(3:440)
- ㉡ 오덕이 세배를 보하며 옥루의 종고 잤는지라 이에 소저로 더불어 화부인의 의군을 섬기고 빨리 취일루에 신성하니(4:438)
- ㉢ 이윽고 춘소 고단하여 효계 창명하니 즉시 관패를 수습하여 존당의 신성하매 존당 삼대 또한 오경 북을 응하여 위궐로 향할새(3:122)
- ㉣ 이 밤을 앓아 새워 오경 북이 초동하매 수레를 구울려 정자에 이르러(3:326)

식으로 인용하되 표기는 가급적 현대어에 맞게 고친다.

3) 정병설과 정창권 등의 선행연구에서도 이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정병설, 『완월회맹연 연구』, 태학사, 1998; 정창권, 『조선후기 장편 여성소설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1999)

인용문 ㉠에서 하루는 새벽닭 소리와 함께 시작된다. 그런데 ㉡에서는 닭 소리와 동시에 ‘옥루의 종고’ 즉 오경의 북소리가 울릴 때에 등장인물이 일어난다. ㉢에서는 닭소리가 먼저 나고 북소리가 나중에 울린다. ㉣에서는 계명에 대한 언급은 없고 북소리만 서술되고 있다. 동이 뜨기 전 새벽의 여명에 새벽닭이 울기 때문에 계명은 곧 자연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오경의 북소리는 오경 삼점(대략 4시 12분경)에 울리는 바라(罷漏)로 인공의 시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바라는 통행금지의 해제를 알리는 북소리이다. ㉤에서 등장인물들이 오경 북소리가 나자 대궐로 들어가는 것과 ㉥에서 오경 북소리가 나자 친구의 집을 찾아가는 것은 통행금지가 해제되었기 때문이다.

㉡과 ㉣에서는 바라 및 계명성에 대한 서술이 엇갈린다. ㉡에서는 바라와 계명성이 동시에 나는 데 반해서 ㉣에서는 계명성이 바라 이전에 나는 것으로 서술되기 때문이다. 이는 바라는 계절과 관계 없이 일정하게 나는 데 반하여 계명성이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데서 기인하는 듯하다. 계명성은 일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여름에 비해서 겨울에 새벽닭의 울음소리가 늦어질 수 있다. ㉡이 있는 권59의 말미에 “시당옹동이라 계정(階庭)에 설화(雪花) 분분하여 나무마다 매화 성개한 듯하더라”라고 하였으므로 ㉡의 계절은 겨울이고, “춘소(春宵) 고단하여”라고 하였으므로 ㉣의 계절은 봄이다. 봄에는 겨울에 비해 1시간 내지 2시간 빠르기 때문에 닭 우는 소리가 오경 북소리보다 빠를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완월>에서 이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처럼 하루의 시작에 관한 서술에서는 인공의 시간과 자연의 시간이 공존하고 있지만, 낮동안의 서술에서는 해에 대한 언급이 많다.

- ㉠ 일색이 처음으로 묘곡에 솟을 때부터 내외 빈객이 모다 화거 주륜이 곡중에 배였더니 진시말의 거조 함집하고 제후 취석하니(3:214)
- ㉡ 일색이 반오에 멀리로조차 풍악이 흰천하며(3:44)
- ㉢ 이윽고 금오 서녘에 떨어지며 저문 빛이 창창한지라 축을 이어 담화하다가 태부인이 취침하시매 참정 곤계 자질을 거느려 퇴하고(3:149)

㉔ 석양에 비로소 파조하신대 정참정과 조이부 또한 사실로 퇴함을 주하여 일시에 물러 겨우 결문을 나매(2:417)

위의 예문에서 시간은 해의 운행에 따라 서술되고 있다. ㉔의 경우에만 ‘辰時’에 대한 언급이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해의 운행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비단 위의 예문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시계로 측정되는 시간에 대한 서술보다는 해에 관한 언급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연의 시간 흐름이 우세한 점은 <완월>뿐 아니라 다른 대하소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화씨충효록>에서도 인공의 시간과 자연의 시간이 공존하고 있지만, 자연의 시간 서술이 우세하다. 즉 “초경 북소리 급하니 양인(兩人)이 급히 적은 주가로 들어가니(권34)”처럼 정확한 시간을 서술한 예가 있기는 하지만, 시간을 대체로 “계초명에 신성하니”, “날이 지뫼을 깨닫지 못하더니 내당으로서 석반이 이르니”, “명일 새배 일어나 내당에 이르니” 등과 같이 자연의 시간이나 문안인사, 끼니와 관련하여 서술되는 경향이 있다. 간혹 “삼경후 생이 정신을 겨우 차려”와 같이 ‘삼경’에 대한 서술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정확한 시간을 밝혔다고보다 ‘한밤중’의 의미로 서술된 것으로 보인다.⁴⁾ 이로 볼 때, <완월>의 시간서술은 조선시대 한글로 창작된 대하소설 전반의 특징일 것이다.

한편 <완월>은 공간적으로는 정씨 일가의 ‘집’이 중심이 된다. 정인성이나 정인광 등이 어린시절에 집밖을 떠도는 동안 등을 제외하면 정씨 일가와 정씨 일가와 관련이 있는 집안 이야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집의 공간은 다시 내당과 외당으로 나뉜다. 인물들은 내외로 구분된 공간에 따라 움직인다.

㉕ 야심한 후 잠을 들때 계명에 깨지 못하되 처사 부부 구태여 깨오지 아니코 부인으로 더불어 존당에 신성한 후 날호여 외현으로 나아가니 화부인이 다

4) 이 점은 한문본 <창선감의록>과 비교할 때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다. <화씨충효록>은 한문본 <창선감의록>에 비해서 자연의 시간에 대한 서술이 두드러지게 많다. 이에 대해서는 즐고, 「<창선감의록>의 이본 변이 양상과 독자층의 상관관계」(서울대 박사논문, 2003) 참조.

시 침소에 돌아오매 공자 비로소 깨어 방중에 촉광이 낮 같으며 부모 밭서 일어나 계심을 놀나 빨리 의대를 수습할새 모친을 향하여 가로되 대인이 존 당에 문후하신 후 외당으로 나가시니이까(2:300)

- ㉠ 이미 석반을 파하고 인하여 혼정지례를 이루매 곧게 되하여 서현에 나오니 (3:342)

㉠에서 나타난 공간은 존당, 외현, 화부인의 침소이다. 존당은 집안의 중심으로 태부인의 거처이다. 집안의 구성원이 문안인사를 위해서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가족간의 단란한 담소가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부모와 자식간의 만남, 할머니와 손자가 만나는 가족 화목의 공간인 것이다. 외현 혹은 외당은 남성들의 공간이다. 남성 인물들은 문안인사를 하기 위해서 존당에 가는 외에는 주로 외당에 머무른다. 이곳에서 손님을 맞이하거나 독서를 하기도 하고 자제를 가르치기도 한다. 젊은 남자들끼리의 담소가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한다. 한편 여성인물들은 태부인의 침소에 문안을 올리거나 자신의 침소에 돌아오는 외에 외현에 가는 일이 없다. 각 부인들의 침소는 부부가 사적으로 만나는 공간이다. 어머니의 침소가 아닌 이상 부인의 침소에 가는 것은 주로 밤에 잠을 자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부모들은 부부간의 화목을 염려해서 남성주인공에게 부인의 침소에 갈 것을 강권하기도 한다.

이처럼 등장인물의 행위는 존당과 외당, 내당에서의 구분에 따라 규제받는데, 가옥구조는 가족관계의 상징으로 작용한다. 가장 웃어른인 태부인의 존재가 집안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내외에 따라 인물의 행위가 서술되는 것은 작가가 추구하는 유가의 이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내외의 구분을 어기는 인물은 부정적으로 서술된다.⁵⁾

내당과 외당으로 구분되는 가옥구조는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일반적 형태이다. 예컨대 구례의 운조루를 보면 집 전체는 크게 내당과 외당으로 나뉘고 내당의 뒤쪽에 가묘를 모신 사당이 있다. 외당 즉 사랑채에는 가부장

5) 따라서 내외의 구분을 어기는 인물은 “설파에 변연이 일어나 죽화전에 이르니 박씨 또한 천륜이 자동하여 아자를 보고자 뜻이 있는 바에 어찌 외현을 구애하리오 즉시 서동의 유를 치우고 공을 조차 서실에 나오니(4:135)”에서처럼 부정적으로 서술된다.

을 위한 큰 사랑방, 장자를 위한 작은 사랑방, 대청, 침소, 서재 등이 있고, 내당에는 안방을 중심으로 하여 부인들이 머무르는 여러 개의 방이 있는데, 결혼 전의 딸들을 위한 초당과 며느리를 위한 방이 나뉘어 있다. 내당에 자리잡고 있는 안방이 집안의 중심인 점도 운조루나 <완월>의 정씨 집안과 유사하다. 그런데 운조루에서는 안방이 가장 나이가 많은 여성 즉 시어머니의 처소가 아니고 종부의 처소라고 하였는데 이 점은 <완월>과 조금 차이가 있다.⁶⁾ 안방에 누가 기거하는가 하는 점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서 정읍의 김씨가의 경우에는 <완월>에서처럼 집안의 연장자인 시어머니가 안방에 기거한다.⁷⁾

2.2. 인물행위

공간이 내외로 구분된 만큼 인물의 행위에 대한 고찰은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야 할 것이다. 먼저 남성의 경우를 정인광의 예를 통해 살펴 보도록 하자.

... 효신이 되니 한림이 먼저 일어나 관소하고 인경으로 더불어 부친의 의대를 받들어 섬김과 금구를 거둬서 평일로 한가지라 처사 물러가 조리함을 명하대 한림이 나직이 대왈 “왕모 우려하실 듯하오니 신성 후 쉬고저 하나이다” 처사 점두하고 즉시 들어가 아래 존후를 묻자와 태부인 안온하심이 평석 같음을 본 후 한림을 돌아보아 쉬라 하니 한림이 비로소 퇴하여 명광현에 나와 장처의 약을 싸매고 조반을 불식하고 반일을 누웠더니 낮문안 때 되었음을 보고 단연이 일어나 존당에 시축할새 화기 여전하여 장처의 대단함을 조금도 사색지 아니나 ... 한림이 이욕이 되셨다가 날호여 퇴하여 모부인 침소에 이르니 부인이 태전으로 조차 갖 돌아와 시녀 등의 삼 삶은 것을 간검하나 여러 가지 불평한 회포 방춘이 어지러울 뿐 아니라 체찰의 만리 위봉을 근심하고 떠난지 사오 삭에 비록 서편을 인하여 무사 득달함을 아나 음용이 아오라 하여 단

6) 운조루에 대해서는 박영순 외, 『우리 옛집 이야기』(열화당, 1998), 44면의 평면도 및 설명 참조.

7) 위의 책, 46면 참조.

회의 기약이 멀었으니 ... 462이에 벼개를 던져 누웠시라 하니 한림이 앉아 있음이 과연 어려운지라 모친 등 뒤에 들어 누으며 웃고 왈 “소자 술을 잠구한 일이 없나니다 매우 취하였다 하시니 아무리면 취한 놈이 인사를 차리리이까 다만 조반을 불식하였더니 심히 허뵈한지라 무엇이 있거든 주소서” 부인이 즉시 한 그릇 미시와 사오 개 진과를 주어 왈 ... 463한림은 석양이 기운 후 깨어 일어 앉아 모부인에게 고 왈 “발서 날이 저물었으니 소자 지리히 자과이다” 부인이 이에 석반을 주어 왈 “신기 비록 불평하나 너모 밥을 폐치 말라” 한림이 진실로 사식지염이 없으며 부모의 성념을 우민하여 강인하여 진반하고 즉시 일어 존당의 들어가 혼정지례를 이루니 태부인이 나호여 어루만져 석반 나온 다소를 묻고 신기 불안한가 물어 권권무유하니 ... 퇴하여 야야를 피서 밤을 지내매 명일 입번하니(권44)

위 인용문은 현대 활자로 간행된 교주본 3권 455면부터 464면까지인데, 부분적으로 축약하였다. 정인광은 새벽이 되어 일어난 후 관소를 하고 집안의 어른인 조모에게 아침문안을 올린다. 문안 뒤에는 서재인 명광현으로 물러나와 조반을 먹지 않고 누워 있다가 이후 낮문안을 올린 뒤에 잠시 조모 옆에 있다가 어머니의 침소에 이르러 요기를 한 후에 누워 잔다. 석양 무렵에 저녁을 먹은 후에 존당에 들어가 혼정 즉 저녁문안을 올린 후에 물러나 아버지를 모셔 잠을 잔 후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입번한다. 이 장면은 정인광의 평상시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위에서 정인광은 조반을 거르는데, 이는 장책으로 인한 상처가 심한 탓이다. 정인광은 장인 장모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부인 장씨를 구박하는데,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아버지로부터 매를 맞은 것이다. 그리고 몸이 불편한 관계로 오후에는 어머니 침소에서 낮잠을 잔다. 아버지로부터 매를 맞아 몸이 불편하다는 점이 평상시와는 다르지만, 조반, 석반 및 신성, 낮문안, 혼정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남성인물의 하루를 재구할 수 있는데, 하루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은 문안인사와 식사이다. 그럼 다른 예문을 참고하여 남성인물의 일상에 대해서 좀더 접근해 보도록 하자.

인물의 일상적인 행위 중에서 가장 많이 서술되는 것도 문안인사와 식사

이다. 정씨 집안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관소를 한 후 바로 아침문안을 올리고 조반을 먹는다.

- ㉠ 설파에 모자 대하여 상도체회함을 마지 아니 하더니 자연소저 조모 침전으로조차 나와 모친과 거거의 슬퍼함을 보고 불승경아하여 나직이 연고를 묻자와 백형을 생각하심인 줄 알고 문득 이성낙색으로 위로하며 인광을 향하여 왕모께 문후함을 일컬으니 공자 비로소 소세하고 나아가 왕모 존후를 묻자온대 태부인이 곁에 앉히고 새로이 비회를 금치 못하며 조선을 한 상에서 진하고(2:301)
- ㉡ 명효에 신정지례를 이룰새 남자 여인이 모다시되 조총재 부인은 구가에 있고 장어사 부인은 이아에 있음으로 이에 참례치 못 하였더라 참정이 자후의 안온하심을 묻자오며 인하여 조선을 파하매(3:345)

㉠에서 인광은 머리 빗고 얼굴을 닦은 다음에 할머니에게 아침문안을 하고 아침밥을 함께 먹는다. ㉡에서는 온 집안 식구들이 모두 모여 태부인에게 아침문안을 한 후에 아침밥을 먹는다. 간혹 아침밥 이전에 효선에 대해서 언급되기도 한다.

- ㉢ 계명에 다시 축을 밝히고 시아 효선을 올리매(1:347)
- ㉣ 조모 효선을 나와 먹이고 날호여 이르되(4:79)

그런데 효선은 주로 태부인에게 올리는 것으로 서술되고 있다. ㉢에서는 태부인이 아들들과 함께 잠을 자고 일어나니 새벽에 시비가 효선을 올렸다고 하였고, ㉣은 아침문안을 온 손자에게 할머니인 태부인이 효선을 먹이는 장면이다.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는 효선에 대한 언급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아침을 먹은 이후에 남성인물들은 관직이 있는 경우에는 조회에 참석하러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재에 물리나와 독서를 하거나 손님을 맞이한다. 낮동안의 일상적 행위와 관련이 있는 자료를 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 부숙의 명이 균중제제를 다 부르심을 의아하여 인홍다려 왈 “현재 등이 이미 낮 문안을 파하였으니 독서기를 위하여 부르지 않으실 듯하거늘 어찌 나오라 하시나뇨?”(2:329)
- ㉡ 미명에 미쳐 서동이 급보 왈 “화경도위 범노야 이르러 계시니이다” 하거늘 장공이 창황히 옷깃을 여미오며 관금을 정제하고 보대를 돋우어 발을 서슴듯이 하며 색을 변하듯이 하여 부마를 맞을새 장공은 동계로 말미암고 부마는 서계로 말미암아 피차 먼저 승당기를 재삼 추양하다가 날호여 승당예필 좌정하매 부마 먼저 말을 퍼 가로되(1:186)
- ㉢ 처사 운계선생이 이공으로 더불어 문운각에 좌를 정하고 자질과 문인을 앞에 두어 학도를 강론할새 저마다 현유와 명사의 진취하여 혹 안연 자기 같은 이도 있으며 혹 민자 중궁의 도덕도 있고(4:393)
- ㉣ 때에 오선을 당하여 남녀 다 태전에 합취하였더니(4:443)

낮 동안의 일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낮 문안과 오선이다. 오선에 관해서는 서술이 그리 많지 않지만, ㉢로 볼 때, 조식과 석반과 함께 통상적으로 행하는 식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정인광은 품이 불편한 가운데도 낮 문안을 한다. ㉠에서도 낮 문안에 언급이 있다. ㉠은 정치사의 친구 소공이 방문하여 정치사가 아들과 조카를 부르는데, 정인광이 자신의 장인이자 은인인 소공이 온 줄 모르고 이를 의아하게 생각하여 사촌인 인홍에게 말하는 장면이다. 인광의 말 중에는 낮 시간 동안 나이 어린 남성인물의 일상이 암시되고 있다. 낮 문안은 아침문안 및 저녁문안과 함께 중요한 일과 중 하나로 보인다.

낮 문안을 위해서 내당으로 가는 일 외에는 보통 서재에서 독서를 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때로는 ㉢처럼 남자 어른이 자질을 데리고 강론을 하기도 한다. 또 “양계공 일자 인명과 의계공 양자 인홍 인유의 지은 글을 주어 차운하라 한대(2:305)”처럼 시 짓는 법을 가르치기도 한다. ㉡에서는 접빈객의 예가 구체적으로 서술되고 있는데, 정씨 집안과 사돈을 맺게 되는 장현이 범도위를 맞이하는 장면이다. 접빈객은 사건의 전개와도 긴밀한 관련이 있는 만큼 <완월>에서는 접빈객의 장면을 자주 찾아 볼 수 있다. 접

빈객은 주로 집안의 남자 어른이 담당한다. 이 장면에서 “승당 한훤 필에” 혹은 “승당에필에”는 사건의 전개와 무관하면서도 자주 서술되는 경향이 있다.

날이 저물 무렵이 되면 저녁을 먹고 저녁문안을 위해서 태부인의 침소에 모인다. 저녁문안 시간은 가족들이 모두 모여 담화를 나누는 시간이기도 하다. 다음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 ㉠ 이미 날이 저물매 석반을 파하고 축을 이어 담화하다가 의계와 양계는 야심함을 조차 퇴하니 상서 모부인 금침을 포설하며 운계로 더불어 시침할새 (1:347)
- ㉡ 이미 석반을 파하고 인하여 혼정지례를 이루매 관계 퇴하여 서헌에 나오니 (3:342)
- ㉢ 축을 이어 담화하다가 태부인이 취침하시매 참정 관계 자질을 거느려 퇴하고 학사와 공자를 각각 신방으로 가기를 명한대 양인이 부숙의 안침하시물 본 후 학사는 벽운당으로 향하며 생은 경운당으로 드러가니(3:149)

<완월>에서 흔히 나타나는 저녁과 밤 장면이다. ㉠에서는 날이 저물자 저녁밥을 먹고 촛불을 켜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부모의 잠자리를 살펴 본 후에 잠이 든다. 여기에서는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 있었고 함께 저녁을 먹기 때문에 저녁문안에 대한 서술이 따로 없다. ㉡에서는 저녁밥을 따로 먹고 저녁문안을 한 뒤에 서재로 물러났다고 하였다. 저녁문안 이후에는 잠을 자는데, 남성인물의 경우 잠을 자는 곳은 여러 곳이다. ㉠에서처럼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자는 경우도 있고, ㉡에서처럼 형제들이 서재에서 경우도 있다. ㉢에서처럼 결혼한 어린 남성의 경우에는 부친의 명에 따라 부인의 침소에 가서 잠을 자기도 한다. 이밖에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자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등장인물의 일상이 소설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중국의 명나라의 일상을 구현한 것인지 아니면 향유되던 조선후기의 일상을 구현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바는 잠자리에 관한 서술

이다. 예문을 통해서 이를 자세히 살펴보자.

- ㉠ 공이 드디어 삼재로 더불어 상에 오르고 자질은 상하에서 자게 할새(3:342)
- ㉡ 차시 이부 부공과 제공의 침금을 포설할새(2:419)
- ㉢ 사랑과 인옹을 돌아보며 자기 침석 제구를 취각으로 옮기라 한대 ... 먼저 취일루에 들어가니 벌써 모친의 침구를 포설하고 장복을 탈하여 단위로 와 상에 비겼다가 일찍 생각지 않은 바의 공의 침구를 가져움을 보고 ... (307)

㉠을 보면 남성 어른들은 침상에서 잠을 자고 자질은 침상 아래에서 잠을 잔다. ㉡은 이부자리를 까는 장면인데, <완월>에는 저녁문안을 마치고 나오면서 어머니나 아버지의 침구를 깔아드리는 장면이 자주 보인다. 그리고 앞서 정인광의 예에서 보았듯이⁸⁾ 아침이 되면 이부자리를 정돈한다. ㉢에서는 정처사가 잠자리를 옮기면서 이부자리를 함께 가져간다. 이러한 장면을 보면 침상에 대한 서술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명나라를 배경으로 하였다는 점을 의식한 듯하다.⁹⁾ 그러나 <완월>에는 대체로 침상에 올라 자는 장면보다는 이부자리를 깔고 깨는 장면이 더 많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완월>에 나타난 잠자리는 우리의 일상과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

한편 여성 등장인물들은 공간적으로 남성과 분리되어 있는 만큼 일상도 남성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다음 예를 통해 여성인물의 일상을 살펴보자.

- ㉣ 소씨 향자에 설한 풍우를 무릅써 축상한 바로 팔구일을 쉬지 못하고 약질이 상한 바로 병이 실려서되 사실에 돌아온 후 조호함을 얻지 못하여 계명을 조차 신성하며 존고와 이소저를 피쳐 존당에 감지를 받들어 때로 좌하에 시립하매 무고히 퇴치 못함으로 혼정을 파하여 돌아온즉 침금에 쓰러져 혼혼이 정신을 거두지 못하다가 계성을 응하여 빨리 일어나면 아픈 것을 강인

8) “효신이 되니 한림이 먼저 일어나 관소하고 인경으로 더불어 부친의 의대를 받들어 섬김과 굵구를 거두미 평일노 한가지라”(3:456)

9) 이는 중국소설의 경우와 비교해야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중국 탄사소설 <재생연전>을 보면 “모녀 상에 올라 취침할새”라고 하여 침대에 올라가 자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이 부분의 원문은 “娘兒收拾上牀眠”이다.)(낙선재본 <재생연전> 권1)

하여 문후지례를 일우는지라 이날도 태전에 혼정을 파한 후 봉루에 존고를 받들어 이르매 태우와 삼공자 침구를 포설하는지라 드디어 물러 사실에 이르니 시아 등이 침구를 포설하였으므로 관잠을 빠히고 장복을 탈한 후 봉침에 쓰러질새(4:323)

- ㉠ 밤을 자매 계초명을 응하여 일어나며 신성지례를 펼한 후는 어른을 조차 태모와 부모에게 이불을 얹고 돛글 거두며 감지를 고히매 물러 침선 방적을 다스리고 때로 문안하여 저물어 침소에 돌아오매 여훈과 여계를 보며 열녀전을 강학하여 촌음을 아끼고(3:167)

㉠은 정인광의 두 번째 부인인 소씨의 하루이다. 소씨는 계명에 맞추어 신성을 하고 혼정 때까지 시할머니의 처소인 존당에 머무른다. 혼정 이후에는 남편 및 시동생의 이부자리를 펴 놓은 다음에 자신의 침소에 온다고 하였다. 남성 인물이 문안과 식사 외에는 서재에 물리나 자신의 시간을 갖는 것과 달리 소씨와 같은 며느리의 경우에는 하루 종일 어른 모시기와 집안 일을 해야 한다. ㉠은 정자염의 하루일과로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인물의 경우를 보여준다. 며느리의 경우와 유사해 보이지만, 물리나 혼자 있는 시간이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남성인물처럼 문안인사 외에는 자신의 침소로 돌아와 침선, 방적 등의 여공을 익히거나 독서를 하는 것으로 서술된다.

결혼한 여성인물이 해야 할 일은 단편적으로 서술된 내용을 통해 채구할 수 있다. 앞서 정인광의 일상에서 화부인과 관련된 서술을 상기하자. 정인광이 어머니 침소에 이르렀을 때에 화부인은 시녀를 시켜 삼을 삼고 있었고, 아들의 저녁밥을 챙겨준다. 여기에서 화부인이 하는 것은 옷감을 마련하는 위한 일과 식사 준비였다. 밥과 옷과 관련된 일은 여성인물이 하는 가장 중요한 집안일이다.

- ㉡ 소부인이 교요히 축을 대하여 태부인 진하실 효선을 다스리며(2:299)
- ㉢ 소씨 짐짓 혼미하여 인사를 모르는 체 하며 간간이 식반을 주지 아니(3:131)

- ㉔ 부인이 이미 날이 저물었으니 존고의 석반 진하심을 보오려 부득이 일어날 새 (3:409)
- ㉕ 태부인 이하 채과를 맛 볼새 상씨의 주반을 정히 하는 솜씨와 아름다운 위인을 칭찬하고(1:357)
- ㉖ 일야는 인옹과 제종으로 더불어 야심토록 문리를 창논하다가 우연이 허뵘함을 인하여 모친께 고하고 무엇을 요기코자 하여 자부인 침당으로 들어오대(3:19)

㉔에서 소부인은 가족이 모두 잠든 밤늦은 시간에 시어머니가 새벽에 드실 효선을 준비한다. 그리고 ㉕에서 정부인은 병든 시누이를 찾아 왔다가 끼니때가 되자 저녁 준비를 위해 일어난다. 이처럼 식사준비를 하는 일은 중요한 집안일이다. 또한 ㉖에서처럼 음식솜씨는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여성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그리고 ㉔에서 소씨가 며느리를 미워하여 밥을 주지 않는 것처럼 가족 구성원을 통제할 수단이 되기도 한다.

여성인물은 또한 남편과 자식을 위해 의복을 마련한다. 철이 지날 때마다 새로 남편의 의복을 마련하는 일은 결혼한 여성이 당연히 해야할 일로 서술하고 있다. 다음 예문에서는 정인광이 부부간 갈등으로 제철에 맞는 옷을 입지 못하는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일기 추량하여 저마다 추의를 입었으되 태우 홀로 양의에 표가를 끼입어 의복이 냉박한지라 이부인 자염이 마침 귀령하였더니 나직이 가로되 “거거의 옷이 심히 냉박하니 추의를 취하심이 옳을까 하나이다” 대우 왈 “구태여 몸이 춥지 않으니 아직 추의를 찾지 아니하였더니 형매의 말을 조차 옷을 갈리라” 조부인 명엽이 잠소 왈 “아내를 내치고 빈희에게 소박맞아 공연이 환부의 우수한 거동을 이뤄 추기 상쟁하나 양의를 갈 길이 없으니 무죄한 사람을 박대하매 유해함이 제 몸에 돌아왔도다” 상부인이 태우의 눈치를 채 보고자 하여 숙연이 이르되 “장씨를 돌아 보낸은 재보의 허물이나 소씨 있으니 어찌 각중에 가부의 절복 받들 처자 없다 하리오 만은 소씨 고집하여 이에 머물기를 차

마 못할 바로 아뢰이 있으니 내 실로 과도히 여기노라 금일로부터 재보의 건
 줄을 옮겨 회당의 두고 소씨로 책임케 함이 옳으니라”(4:71)

정인광은 장씨와 소씨 두 부인을 두었으나 장인 장모와의 불화로 장씨를
 구박하고 병들어 친정으로 가게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인 소씨는 첫째
 부인이 없는 상황에서 남편의 의복을 마련하는 일이 월권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거부하고 있기에, 정인광은 추운데도 얇은 옷만 입고 있는 것이다. 위
 장면을 통해 보면 의복을 마련하는 일도 권한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식사와 의복을 관리하는 일이 결혼한 여성이 해야 할 중요한 임무이면서
 권한이지만, 침선과 방적이 지나쳐서 혹사의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나타난
 다. 소부인은 며느리 이소저를 미워하여 과도한 양의 침선과 방적을 시킨
 다.

차일에 소부인이 이소저를 사실로 물러가라 하되 침선 방적을 피 같이 밀
 어 맡기고 낮인즉 감탕을 받들며 밤인즉 침선을 힘쓰게 하니(3:304)

이소저는 하루 종일 시어머니 수발에 시달리고도 밤에 처소에 돌아가면
 침선과 방적을 하느라고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 대하소설에서 집안일은
 여성이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서술되고 있으나, 집안일 자체로 인한 괴로움
 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고부간의 갈등도 거의 서술되지 않는다. 소씨와
 이소저의 경우에도 소씨가 이소저를 미워하는 이유는 이소저의 남편 정인
 성이 자신의 친생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고부관계가 아니기 때문
 에 시어머니가 침선과 방적을 과도하게 시키는 것은 비일상적인 것처럼 서술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자염의 하루에서 보면 ‘침선과 방적’은 여성의 의
 무라고 하였으며, 이소저의 베짜는 솜씨가 비상한 것으로 서술하는 대목을
 보면 침선과 방적 자체는 일상적인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완월>에서 서술된 바 식사준비와 침선 및 방적은 실제 조선시대 여성
 의 일상적인 가사노동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듯하다. 조선시대 여성백과

사전이라 할 수 있는 빙허각 이씨의 『규합총서』는 <주사의>, <봉임척>, <산가락>, <청낭결>, <술수략> 등 다섯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¹⁰⁾ 이 중에서 <주사의>에는 장 담그며 술 빚는 법과 밥, 떡, 온갖 밥반찬 만드는 법이 설명되어 있고, <봉임척>에서는 옷 만드는 법과 염색, 길쌈, 수놓기, 양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를 참고할 때, 먹는 것과 의복 만드는 것이 조선시대 여성의 주요 일과였음을 알 수 있다.

3. 소설에 나타난 일상의 의미

<완월>은 조선시대가 아닌, 중국의 명나라 正統년간에서 天順년간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에 서술된 것을 그대로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일상이라고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작가가 거의 경험하지 못한 명나라의 일상에 가깝게 서술하려고 했다면, 조선시대의 일상과는 큰 거리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완월>에서 서술된 일상은 여러 모로 조선시대의 일상과 유사한 면모를 보였다.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월>에서 서술되고 있는 삶의 모습은 조선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기에, 당대의 향유층에게 <완월>의 일상은 친숙하게 느껴졌을 가능성이 높다. 문안인사와 식사, 접빈객, 침선과 방적 등 남녀 등장인물들의 행위는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남녀구성원이 일상적으로 행했던 일이다. <완월>에서는 사건의 전개와 크게 관련이 없는 이러한 일상적 행위가 반복되는 가운데 가족들의 애환이 변주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명나라 정통년간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였더라도 당대 향유층에게 등장인물의 삶은 낯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완월>의 일상이 당대의 일상을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도 존재한다. 등장인물들이 침상에 올라 잠을 자는 장면 등이 단적인 예이다. 그리고 <완월>에서는 낮보다는 저녁시간의 서술비중이

10) 장철수, 「『규합총서』의 민속학적 의미」, 『규합총서』 한국학자료총서 2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11~16면.

높다. 저녁이면 촛불을 환하게 켜 놓고 가족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기도 한다. 여성의 경우에는 촛불 아래 다음날 음식을 준비하거나 바느질과 베짜기를 한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초를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¹¹⁾ 초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으로 서술된 일상의 모습은 사실과 거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완월>에서는 한 집에 여러 세대와 친척이 모여 산다. 정잠과 정삼의 2세대뿐 아니라 정잠과 사촌관계에 있는 정흠과 정염까지도 한 집안에서 지낸다. <완월>에서는 “일장 언쟁하여 회소 분분하고 희학이 방지하니 태부인이 화기를 열어 회우 환흡하니 선생과 상부인이 간간이 찬소하여 즐기더니(3:467)”, “일장 언쟁하여 회소 분분하고 희학이 방지하니 태부인이 화기를 열어 회우 환흡하니 선생과 상부인이 간간이 찬소하여 즐기더니(4:70)”와 같이 태부인의 처소에 온 가족이 모여서 농담을 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가장의 죽음도 집안이 처한 정치적 위기도 가족이 함께 위로하면서 극복하고 있다. 대가족이 모여 사는 모습 또한 일상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는 듯하다.

이런 몇 가지 예는 <완월>에서 서술된 모습이 당대의 일상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문제는 ‘사실’과 거리가 있는 일상적 삶이 소설에서 왜 서술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완월>에서 서술된 일상은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이다. 집안의 어른을 중심으로 자손들이 한데 모여 사는 모습,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모습, 자식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완월>의 작가는 자신이 소망하는 삶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완월>은 배경으로 하고 있는 명나라의 역사적 사실을 구체화하려는

11) 『조선왕조실록』의 다음 기록을 보면 초의 가격이 만만치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 “내가 세제로 있을 때에 야대에 촛불을 밝혔는데, 역시 浮費함이 있었으니 세손의 야대에도 의영고로 하여금 진배하지 말게 하고 그 촛불은 대내의 것을 쓰게 하여 세손으로 하여금 비용을 아끼는 뜻을 알게 하라” (영조 37년 1월 29일); ㉡ “밤에 신료를 접할 때는 경비가 많아야 하니 이는 촛불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 밤이 어두운 때는 일도를 지남이 없도록 하여 내가 비용을 아끼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영조 37년 12월 17일) 또한 은진 송씨와 같은 상당한 명문 집안에서도 일상생활에서 초보다는 등을 많이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허경진, 『사대부 소대현 호연재 부부의 한평생』, 푸른역사, 2003. 참조)

의도에서 창작된 것이 아니다. 역사적 사실을 구체화하기에 작품의 시간서술은 너무도 막연하다. 해가 뜨고 지는, 그러면서 계절이 바뀌는 자연적 시간을 흐름은 역사서에서 서술하는 시간과는 거리가 있다.¹²⁾ 또한 공간적으로 작품 전체에서 중요시되는 것은 정씨 일가의 ‘집’이다.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서사(이를 테면 토목의 변)를 서술하면서도 정씨 일가의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서술된다. 명나라의 정통년간이라는 배경은 정씨 집안의 정치적 부침과 관련해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집안에서 남성과 여성 주인공들이 하는 일에서 가장 자주 서술되는 것은 문안인사이다. 때가 되면 집안 어른에게 문안을 거르지 않는 모습, 저녁이면 부모의 잠자리를 살펴보는 장면 등은 사건 서술과 그다지 관련이 없는 대목에서도 반복적으로 서술된다. 가족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서사와 무관하게 확대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렇기에 <완월>의 작가가 단지 등장인물간의 갈등이나 이들이 겪는 사건을 전달하기 위해 소설을 쓰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완월>에서는 ‘서사’의 전개뿐만 아니라 이상적 삶에 대한 서술 자체도 중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독자에게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다. 독자들은 등장인물이 겪는 일을 중심으로 서사의 전개에 흥미를 느끼고 작품을 읽는데 그치지 않고 서술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 자체에도 관심을 두었을 것으로 보인다. 작품 내의 일상이 자신이 살고 있는 당대와 크게 다르지 않기에 독자들은 쉽게 등장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다. 독자들은 소설에서 서술된 일상으로 인해 작품에 몰입하게 되는 것이다. 비록 독자가 처한 현재는 정씨 일가와 다르더라도 <완월>을 통해서 욕망을 충족하고 위안을 얻을 수 있다.

조선시대 소설에서 일상은 <완월>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대하소설류에서 비교적 잘 드러난다. 대하소설은 기본적으로 길이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지만, 분량 외에 작품의 내용면에서도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내용상으로 대하소설은 주요 인물의 집안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

12) <미암일기> 등 조선시대 일기류나 『조선왕조실록』에서는 辰時, 未時 등 시계의 시간으로 서술된다.

본고에서는 <완월>의 경우만 집중적으로 다루었지만, 길이가 긴 작품에서는 일상에 대한 서술이 서사의 전개와는 무관하게 확대된 예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일상의 내용은 주로 집안과 관련이 있다. 오늘날의 독자에게 낯마다 반복되는 일상을 서술하는 것은 지루할 수 있지만, <완월> 및 이와 유사한 소설류에서 일상이 서술되고 있다는 점은 당대 향유층이 소설을 읽는 이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 소설의 일상은 현대 소설에 흔히 지적되는 ‘근대적 일상성’과는 양상이 다르다. 현대 소설에서 일상은 흔히 자본주의 질서 하에서 소외되고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으로 조명된다.¹³⁾ 현대 소설의 일상이 조선시대 소설의 일상과 다른 이유로는 우선 근대 이전 전통적 삶과 근대 이후의 일상의 변모가 소설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⁴⁾

근대 이전의 전통적 삶에서 인간은 삶에서 소외된 존재가 아니었다. 가족의 일원이라는 점만으로도 개인의 존재는 의미가 있었다. 문안인사, 식사, 시침과 같은 일상적 행위는 무의미하고 따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가족 안에서 자신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의미한 행위였다. 일상이 파괴되지 않고 지속되는 한 개인은 행복할 수 있다. 그런데 현대에서 가족의 의미는 퇴색되었으며, 시간적·공간적으로 가족이 함께 하는 삶이 변모하였다. 집이 공간적으로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집은 밤이 되면 잠을 자는 곳일 뿐 함께 식사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삶의 중심은 아니다. 이러한 시대의 차이가 소설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일상의 차이를 근대성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듯하다. 오늘날의 사회가 전통 사회에 비해 크게 변모한 것은 사실이나 <완월>에서 나타난 일상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TV 드라마에서는 일상의 의미가 <완월>과 유사하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일 드라마의 경우에 가족의 이야기는 빠지지 않는다. 조선시대 소설과 마찬가지로 드라마 속에서는 집이 삶의 중심이 되고 가족이 개인의 존재를 확인시켜 준다. 따라서 집안에서의 일상적 모습이 오히려 위안을 주게 된다. 오

13) 김승옥의 소설을 예로 보면, 일상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완월>과 달리, 일상은 벗어나고픈 것이다.(김명식, 『한국 소설과 근대적 일상의 경험』, 새미, 2002. 참조)

14) 현대 소설 연구자들은 대체로 이러한 시각을 취하고 있는 듯하다.

늘날의 시청자에게 드라마 속의 가족의 일상이 위안과 오락의 의미를 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근대화로 인해 가족의 모습은 많이 변했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가족은 중요한 의미이자 행복의 기본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¹⁵⁾

4. 결론

본고에서는 <완월>을 대상으로 하여 소설에 나타난 일상을 고찰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소설 속의 일상의 모습은 소설이 읽히고 창작되던 당대의 일상과 유사하면서 달랐다. 이와 같은 결과는 소설이 현실에서 존재하기를 원하는 것을 투영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완월>의 경우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대가족에 대한 소망이 반영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소설의 일상과 당대 현실의 일상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소설에서 일상 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소설의 일상을 통해서 당대의 삶을 복원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현대 소설과는 달리 조선시대 소설은 당대가 아닌 중국의 과거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라고 해도 소설은 허구이기 때문에 소설의 일상을 그대로 ‘사실’로 인정할 수는 없다. 소설에 반영된 일상은 소설을 읽고 창작하던 당대인의 실제 삶이 아니라 이들의 의식과 관념 속에 형성된 일상이다.

그러므로 소설에서 과거의 사실 자체가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소설의 일상은 허구화되는 과정에서 변형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변형된 일상의 의미를 밝히는 과정에서 고문서나 일기와 같은 기록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당대인의 심성은 오히려 잘 드러

15) 소설의 변모가 사회구조의 변모를 반영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소설에서 등장 인물의 일상생활이 당대 사회의 일상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다. 소설에서 독자가 무엇을 기대하는가에 따라 소설의 일상은 당대의 일상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현대 소설과 조선시대 소설의 일상이 다른 것은 ‘소설에 대한 독자의 기대’에 보다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

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소설에 나타난 일상을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당대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KCS I

참고문헌

- 김진세 교주, 『완월회맹연』, 서울대출판부, 1989.
조선왕조실록 CD
- 김명식, 『한국 소설과 근대적 일상의 경험』, 새미, 2002.
김복수 외, 『일상생활의 시·공간적 재구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
김응중, 『아날학파의 역사세계』, 아르케, 2001.
박병호 외, 『조선시대 생활사』, 한국고문서학회 편, 역사비평사, 1996.
박영순 외, 『우리 옛집 이야기』, 열화당, 1998.
안병직 외, 『오늘의 역사학』, 한겨레 신문사, 1998.
정병설, 『완월회맹연 연구』, 태학사, 1998.
허경진, 『사대부 소대헌 호연재 부부의 한평생』, 푸른역사, 2003.
Braudel(주경철 역), 『물질문명과 자본주의(상·하)』, 까치, 1995.
Damton(조한욱 역), 『고양이 대학살』, 문학과지성사, 1996.
Hunt 편(조한욱 역), 『문화로 본 새로운 역사』, 소나무, 1996.
Lütcke 외(이동기 외 역), 『일상사란 무엇인가』, 청년사, 2002.
- 장수택, 「근대적 일상생활의 구조변화」, 『한국사회학』 32, 한국사회학회, 1998, 50
3~529면.
- 김성희, 「여성의 직조노동과 지위의 변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권 5호, 한국
가정관리학회, 2001, 67~82면.
- _____, 「조선시대 여성의 가내외에서의 일상생활-조선후기 회화에 나타난 여성
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2권 7호, 대한가정학회, 2004, 175~192
면.
- 김응숙, 「문화연구와 일상경험의 세계」, 『한국언론학보』 42-3, 한국언론학회, 1998
봄, 66~99면.
- 노성숙, 「일상의 미학과 아도르노」, 『철학』 72, 한국철학회, 2002, 221~245면.
- 우인수, 「조선시대 생활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역사교육논집』 23·24, 역사교육
학회, 1999, 825~854면.
- _____, 「조선후기 한 사족가의 생활양식」, 『조선시대사학보』 12, 조선시대사학회,
2000, 69~94면.

- 이영빈, 「앙리 르페브르의 일상생활비판론 연구」, 『서양사론』 54, 한국서양사학회, 1997, 59~91면.
- 이지영, 「〈창선감의록〉의 이본 변이 양상과 독자층의 상관관계」, 서울대 박사논문, 2003.
- 장세룡, 「미셸 드 세르토의 일상과 민중문화」, 『서양사론』 82, 한국서양사학회, 2004, 205~238면.
- 장철수, 「『규합총서』의 민속학적 의미」, 『규합총서』, 한국학자료총서 2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3~18면.
- 전경목, 「일기에 나타나는 조선시대 사대부의 일상생활-오회문의 <쇄미록>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19권 4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45~71면.
- 정창권, 「조선후기 장편 여성소설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1999.
- 遠藤隆俊(김종건 역), 「북송 사대부의 일상생활과 종족-범중엄의 <가서>를 통한 분석」, 『중국사연구』 27, 중국사학회, 2003, 33~48면.

K C I

The every day life in roman-fleuve of Joseon

Yi, Ji-young

This study is on the every day life reflected in roman-fleuve of Joseon, especially in *Wamwoel-Hwaimaengyuem*(완월회맹연). In *Wamwoel*, the narrative focuses on the character's family and their every day life. The flow of time and organization of space, and character's daily work is discoursed in detail. Regardless of its historical setting Ming dynasty, the daily life reflected in *Wamwoel*, is similar to the real life of Joseon's people. But they is not exactly same, because it is not history, but fiction. The every life of *Wamwoel* is not the real life, but the life that Joseon's people wanted to live. Contrary to modern novel in that daily life reflects estranged life of an individual, Joseon's novel narrates the daily life in that a individual is tied up to family, so a individual in Joseon's novel is happy. The difference is not just from the difference of age of generation. The basic cause is the difference of function of novel. Roman-fleuve of Joseon was not literati's work, but was solace or good pastime like modern film or soap-drama.

Keywords: every day life, *Wamwoel-Hwaimaengyuem*(완월회맹연), daily life, function of novel

K C I